

지도 협정을 통한 청구권 포기 대상에 포함되
는 것일까. 더욱이 불법행위의 성격이나 강

서 양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 방
안을 찾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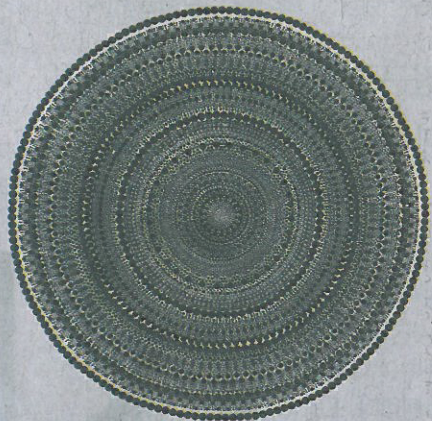
2013. 09. 24

국제갤러리(주)

fnart 와 함께 하는 그림산책

인도 여성의 상징 '빈디' 그 작은 점이 일궈낸 거대한 형상

인도 여성들이 양미간에 붙이는 빈디(bindi·산스크리트어로 '점'을 의미)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여기엔 '세 번째 눈'이라는 은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작은 점은 간혹 인간의 정신을 형성하는 여섯 번째 차크라(chakra·인간의 몸에 있는 정신적 중심부)로 간주되기도 했다. 또 인도 전통사회에선 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헌신과 복종을 뜻하는 속박의 도구로도 곧잘 활용됐다. 세계적인 인도계 영국 여성작가 바티커(44)는 이렇게 작은 빈디를 캔버스에 하나하나 붙여 거대한 형상의 그림을 완성해낸다. 인도 여성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빈디를 손으로 붙이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그는 인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작업이 갖는 의미에 관해 묻고 또 묻는다. 오는 10월 5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그의 국내 첫 개인전엔 빈디를 이용해 만든 '스퀘어 어 서클(Square a circle)'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각과 평면 작품 등 신작 여러 점이 나왔다.



바티커 'Square a circle' (10월 5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